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논평		
	보도일시	2019. 12. 12.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9. 12. 12. 목	총 1매 (별첨 0건)

**어린이집 3~5세 급간식비 기준
1745원 ⇒ 2559원 현실화 환영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철저한 감시제도 마련해야

△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급간식비 기준을 0~2세 1900원, 3~5세 2559원으로
고시할 예정

△ 엄마들 노력으로 어린이집 0~2세 106억, 3~5세 1514억 가량 예산 확보한 셈

△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부모 모니터링단’ 은 방문일정 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실효가 떨어짐

△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양육자들이 상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혈세 낭비를
막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음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간식비 기준을 0~2세 1900원, 3~5세 2559원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23년만의 기준 인상 일단 환영한다!

0~2세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106억이 증액되었고, 3~5세의 경우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예산 2163억 중 약 70퍼센트(1514억)가 급간식비 인상분이라고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캠페인을 벌인지 7개월 만에 전국 140만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을 위한 1620억의 밥값을 마련했다. 1800여명의 회원들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날마다 전화·문자메세지로 예산 증액을 촉구하여 이뤄낸 성과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원들의 노력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은 0원에서 119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0~2세 1900원/3~5세 2559원 기준이 충분한 액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 예산에 지자체별 지원금을 합산하면 전국 231개 시군구 중 99곳에서 3000원대 급간식을 제공할 전망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전수조사 한 전국 300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에 따르면 최하 3000원선이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연말까지 지원금이 0원인 81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자체별 지원금 인상 요구로 식판차별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부모 모니터링단’ 은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증액 된 급간식비 예산 1620억이 아이들의 입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양육자가 직접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제도를 사립 어린이집·유치원까지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